

전체기사 구독신청 광고문의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윤태훈 기자

+

-

🖨

🔖

교계 | 입력 2021.10.03 14:27 | 수정 2021.10.03 15:13 | 호수 1604 | 댓글 0

“우리의 걸음이 불교중흥의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불교중흥 염원 담아 걸음걸음 내딛어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될 것으로 기대

“이전까지 한국불교는 산과 농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도심과 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산중불교, 어려운 불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계기로 산중에서 벗어나 도심 대중과 함께하는 쉽고 적극적인 불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 423km에 이르는 대장정의 단장을 맡은 원명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간절히 염원하며 올해도 대중들과 함께 걸음을 내딛고 있다. 스님은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불교 대중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루 평균 25km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심지어 9개의 재를 넘는 등 작년보다 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함께 걷는 이 걸음걸음이 전법의 꽃씨가 돼 훗날 불교중흥의 꽃으로 피어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고 순례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귀중한 가치를 지닐 겁니다.”

스님은 전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순례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거듭했다. 스님은 “순례대중 9할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행선하고 있으며 개인 텐트를 지급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로 접어드는 현재, 천리순례가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심걱정보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사부대중이 자유롭게 모여 차를 마시고 소통했던 과거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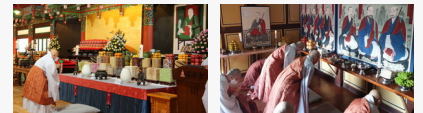
스님은 또 “매일 25km를 걷다 보면 개인에 따라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에 쥐가 나는 등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길 수 있지만 함께하는 도반이 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한다면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듯 마침내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도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코로나 극복과 치유 위 쑥계총림 쑥계사, 개산한 영축산 개산의 축제 1297주년·창건 1181주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1회 산해원문화상 후보...
양주 청련사, 중앙절 맞아 생전예수시왕칠일재...
전국비구니회, 불교유적 가톨릭 성지화 대응...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
불교환경연대, 20주년 맞아 100일 기도 진행
조계종 사노위, 기후정의 실현 촉구 행진
달라이라마 “무조건적인 믿음 경계하고, 사유...
유승민 후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불교...

연재

< >

자현 스님의 유튜브 인기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김진영의 불교, 동물을 품다

18. 기러기 - 상



박희택의 경전 읽는 기쁨

42. 지혜 ⑥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침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클래식 선율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김형규의 통찰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



법보시

"불교연론 역할 이고득락에 ...



많이 본 뉴스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갇아야죠"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 "전면 재검토"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침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추천순답글순

① BEST댓글